

종합

“광주시 서민 지원·일자리 창출 시능만”

중소기업 지원자금 6대 광역시 중 최하위권 신보재단 출연금도 전남 681억원보다 적어

광주시가 내놓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호권 광주시의원은 13일 제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광주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총 2250억원으로 6대 광역시 중 울산은 제외하고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소유형업시설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도 광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올해 68억원을 투

자했지만 광주시는 4분의 1 수준인 14억원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금 확대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말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역시 광주가 627억원으로 대구 1164억원, 부산 1221억원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전남의 681억원 보다도 적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청이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에 근거해 선정된 ‘성공점포 100개’에 대인시장 1개만 포함돼 광주시가 16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한 마케팅 사례를 뽑으려고 시행한 공동마케팅 우수사례 공모전에 광주는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광주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서도 “민선 4기 1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광주시의 실업자 수는 2008년보다 1000명이 늘어난 2만 6000명에 달했고, 민선 5기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민선 4기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실효성에 많

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내의 중견기업 유치 1만개,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 8000개, 자동차산업 육성 5000개 등 제조업 분야에서 2만3000여개 일자리(연평균 575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규모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적긴 하지만, 올 9월 말 현재 애초 계획 1300억원 대비 96%인 1246억원을 지원하는 등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라며 “민선 5기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700억원을 증액하고, 매년 2000억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립 실험관센터 유치 추진위’ 현판식 3일 오후 장성군 남면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국립 실험관센터 유치 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양수 장성군수, 전석홍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박재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강정태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 풍력산단 조성계획 ‘탄력’

정부 ‘제2 조선산업’ 육성 9조 투자 결정

정부가 풍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중인 풍력산단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녹색성장보고대회’를 열었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9조원을 투자하는 등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것이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발전기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하

는 한편, 태양광 장비, 배터링·기어박스 등 8대 부품·소재·장비에 1조원을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에 따라 전남도의 풍력산업 프로젝트가 ‘순풍’을 탈 전망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서남권 연안 및 해안·해상에 5GW급 발전단지과 풍력설비 전용산단(231만㎡), R&D센터 구축사업 등을 조성하기 위해 45개 기업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영광군 앞안마도 해역에 해상풍력 실증사업단지(100MW급) 조성을 추진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머신 드디어 영암에 왔다

22일부터 영암에서 열리는 ‘F1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인터내셔널 서킷을 질주할 F1 ‘머신(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본 그랑프리에서 마친 F1레이스 팀의 일부 머신이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뒤 통관절차를 거쳐 영암 F1경주장에 도착했다.

현재 영암 경주장 정비소인 피트(Pit)에 안착한 차량은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의 페라리 팀과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의 메르세데스 팀의 머신 4대 및 팀 장비.

조직위는 이들 머신을 시작으로 F1코리아 그랑프리에 참가하는 12개 팀 24대의 머신이 14일까지 모두 영암 경주장으로 옮겨진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



빛의 만평

- 김종두



目下 독서중

광주시 국제화 전략 ‘헛구호’

“관련 조직 축소·교류실적도 미미”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민중·동구 2)은 13일 조선대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전략적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광주시의 국제화 추진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아 국제화 추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제교류 실적도 7개 국가 9개 도시에 그쳐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따르면 서울은 25개 국가 30개 도시, 부산은 17개 국가 23개 도시, 대전 17개 국가 21개 도시, 울산 8개 국가 13개 도시에 달했다.

이런 실정에도 광주시는 민선 5기 조직개편을 통해 국 단위 도시마케팅을 경제정책과 내 1개팀으로 축소했다.

광주시는 또 지난 2008년 용역비 1억8000만원을 들여 국제화 전략을 포함한 ‘도시마케팅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구 서석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광주시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추진

광주시가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정비지역’으로 정하고 동구 서석로 일대를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가 최근 확정된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5개 자치구에 1곳씩 우선정비지역을 지정·고시,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표시 금지·제한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정비하기로 했다.

생계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2가지 색으로 계고장을 만들어 2차례 단속 예고한 뒤 강제철거하는 스리아웃

을 실시하고, 5개 자치구별로 20명씩 ‘(가칭)광고문물 선진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점포주 방문 캠페인 실시, 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에 나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동구 서석로(총장로 1가 입구~광주 자치구에 1곳씩 우선정비지역을 지정·고시,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표시 금지·제한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정비하기로 했다.

생계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2가지 색으로 계고장을 만들어 2차례 단속 예고한 뒤 강제철거하는 스리아웃

라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을 1대씩 구입하도록 2000만원씩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에만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 고정광고물 75건, 유동광고물 37만7788건 등을 단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오늘의 국감

- ▲기재위=광주지방국세청(오후 2시·광주국세청)
- ▲복지위=국립나주병원·화순전남대병원(화순의학생명산업단지 현지시찰)
- ▲국토해양위=익산지방국토관리청(오후 10시·한국철도공사)

전남·북서군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야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원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가을맞이 부동산 축제 무료특강

2011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2010년 하반기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시장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과 현명한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광주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연주제

- 최근 부동산 활성화대책과 2011년 재-테크 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생산성본부(KPC) 부동산위촉교수
- 전남대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소액으로 강남부자 따라잡기 성공비법
강사: 박관식 원부동산연구소장
- 헤양대 부동산재테크 전임강사, 롯데백화점 전임강사
- (사)대한부동산학회이사, 기업제 등 특강30회 이상 출강

강의내용

- 온돈기시대 부동산정책 뒤에어려운 성공전략 “위기는 기회다”
- 금년에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비법
- 2011년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전망과 투자가치의 비전제시
- 소액 돈으로도 우리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가?

■ 일시 : 2010년 10.15(금) 오후 1~3시(주차는 롯데백화점)
■ 장소 : 광주은행 본점(대인동소재) 3층 대강당
■ 강의로 : 무료

최석 및 당일 온장관게로 사전에 전화 예약바랍니다.(선착순 마감)

■ 후원 : 다와옥션 경매 사이트 이용권(3만원) 무료제공

전화접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062)221-1810~2
HP / 017-613-1808

6년근 홍삼 활정원 活精源

아침 저녁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과함께 드십시오!!

어울림참삼이더에서는 공진단, 우황청심환과 함께 중국황제에게 진상되던 3대 비약중 하나로 정기간 전정약속속에서도 항상 건강을유지했던 비결이라고 전해지는 경옥고를 업그레이드한 6년근 홍삼활정원을 다문화 가족과 함께 정성껏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옥고는 동의보감에 4,000여종 이상의 처방 가운데 가장 첫번째로 수록된 제1처방으로, 양성연년약이편(養性延年藥餌篇, 건강하고 오래 살게하는 약)에 실려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효능을 보면 [경옥고는 정(精)과 수(髓)를 채워주고 기(氣)를 크게 하며, 원기를 보하여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모든 허손증(虛損證)을 보하며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팔머리가 다시 젊어지고 뼈질이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 집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울림 참삼이더 이야기
어울림 참삼이더에서는 이주여성들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세계적 명차 6년근 홍삼활정원(경옥고 류)를 배워 만들어 판매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일반교육생모집 (10주)과정 (직장인, 일반인)

- ▶ 경옥고 학교: 4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00-15:00 월 회비: 100,000
- ▶ 전통차(보이차, 말차, 녹차): 4회 매주 화요일 10:00-13:00 1회 일반회원: 30,000
- ▶ 바리스타(커피이머지): 4회 매주 금요일 10:00-15:00

새어울림다문화센터 ☎062)676-8877 Fax: 655-7009
주소: 광주시 남구 봉선동 999-1

농협 301-0062-9920-11 사) 어울림참삼이더
운영자: 김인숙 -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교수, 어울림다문화 센터장